



통권 92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1999. 6. 11.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제10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열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희생자들을 기리고 따르는 추모제가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있다. 10회째를 맞는 추모제는 열사들이 문명한 거리에 열사들의 이름을 명명하는 '열사의 거리', 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미사, 기도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며 열사정신 계승 유적지 순례에 이어 12일에는 추모제가 열린다.



문명시대의 야만지대

부산구치소의 양심수에 대한 폭력, 인권유린 만행을 규탄한다.

국가권력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와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인권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오늘, 교도소, 구치소등에서의 면회, 청원, 집필절차와 귀휴 조치 등 재소자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있는 때, 바로 구금시설에서 수용자 인권보호에 책임이 있는 교정 당국이 오히려 재소자 권익에 반하는 부당행위와 폭력, 폭언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 분노와 규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부산구치소 당국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 양심수들을 아무런 예고 없이 강제 분리 이감시키면서 무차별적인 집단폭행과 입에 담지 못할 인격 모독의 욕설 등 인권유린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면 소송당사자로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고 재소자 일반이 누려야 할 권리마저 짓밟았다.

관련 피해자들이 가족 면회에서 밝힌 증언에 의하면 강제이감되던 아침 9시까지도 김명호씨가 가족면회를 하는 등 이감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가 9시 40분 갑자기 100여명 교도관이 15동 사동에 들어와 속옷바람인 사람까지 옷을 갈아입을 기회도 주지 않고 10여명씩 달라 붙어 팔, 다리를 붙잡고 끌어 냈다고 한다. 갑작스런 행패에 항의하자 '맛 좀 보여 줘야돼', '야, 뺄 이 새끼야 똑바로 안하면 죽여 버릴테야' 등 욕설을 퍼붓고, 발로 차고 짓밟으며 강제로 이철현씨 등 5명을 이감 버스에 짐짝처럼 내던져 부산교도소로 이송됐다는 것이다. 정대연씨 경우 손목 뿐 아니라 발목에까지 수갑을 채우는가 하면 뺨을 반복해서 때리고 '저항하지 않을테니 숨을 쉬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 사람이 끔찍 못하게 붙잡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몸위를 깔고 앉아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게 했다고 한다. 부산구치소에 남겨진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다른 네명도 담요로 덮어 씨우고 무차별 구타와 목을 조르는가 하면 접견 이후 들어가는 동안에도 계속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증언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김영준 외과장과 혜인병원 고창권 원장이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진료한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박경순씨의 경우 끌려가면서 발로 짓밟히고 채인 데가 「양쪽어깨, 팔꿈치, 아래다리, 가슴부위의 군데 군데 땅이 들었고, 예상 치료기간 14일간」 등으로 소견이 나왔고, 김창현씨 3주, 김용규씨 2주 진단등, 여러 증상을 말하고 있다. 이감시키면서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김명호씨는 「목과 우측 어깨부위의 통증 호소, 부종형성, 압통 심하게 호소함, 특히 목은 운동 제한되어 경직되어 있음. 우측 어깨 부위의 피하 출혈 존재, 우측 두 정부의 피하출혈 존재함. 예상치료기간 21일간」 등으로 진단 나왔고, 이철현(2주) 방석수(1주) 정대연(1주) 임동식(1주) 씨 등도 증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존엄해야 할 인간, 그 인권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리, 이감시킨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상해자 치료보장을 해야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등 법무부장관의 엄중한 사과가 있

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또한 소송당사자로서의 피의자는 검찰의 공소유지 노력에 맞먹는 방어권 수단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은 피의자들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소송 당사자간에 공소유지와 사건조작이란 치열한 공방이 있어 왔고,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공소유지가 어렵게 되자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 '이적단체 구성·가입'이라는 궁색한 공소장 변경으로 검찰이 증거없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등 혐의에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도·감청자료 압수 디스켓마저 심리 과정에서 변조의혹이 일었고, 검찰이 제출한 전화감청과 대화녹음 자료, 비디오테이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북녘동포돕기운동'이 무죄가 되었으며 단체를 이끌 강령이나 규약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꿩 대신 닭' 하는 식으로 이적단체 가입·구성 혐의를 써운 항소심 자체도 결코 승복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자 모두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다른 어떤 피의자들처럼 이들도 자신들의 무죄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상태에서 가족이나, 변호인 등을 만나고, 정신적 안정과 방어 논리에 몰두해야 할 때, 기결수만 있는 교도소로 더구나 관련자들을 분리 이감시키는 조치는 공소유지(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에 실패한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사게 하고 있다.

단식 5일째인 5월 31일, 예기치 않은 강제이감으로 정대연씨등 5명은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었고, 김용규씨등 4명은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또한 이들 9명은 모두 6월 10일 현재 15일째 단식농성중이다. 이들은 ▲폭력을 행사한 교도관에 대한 처벌 ▲폭력을 방조 또는 지휘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약속 ▲강제이감한 5명을 부산구치소로 환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가족 및 인권단체 회원들은 부산구치소 앞에서 11일째 밤샘농성을 하고 있다.

한편 단식이 장기화되자 임동식, 김명호, 이철현씨 등이 탈진상태에 빠졌고, 구토를 하고 있으며, 극도로 건강이 나쁜 상태이다. 그러나 부산구치소는 김용규씨 등 4명에 대해 운동시간에 운동을 허락하지 않는 등 준정벌에 처해놓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일은 단식자에게 생수마저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구치소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영남위원회' 구속자들을 원상복귀 시켜라

폭력교도관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법무부장관은 강제이감과 폭행관행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만기’ 없는 감옥생활, 내 아들을 되돌려주세요

고현희 · 후원회소식 편집부

한시도 놓을 수 없는 긴장과
자기 점검의 냉철하고 완고한
독이 무너집니다

감정적으로 흐르는 건 금물이라고
그건 위험의 적신호라고
최대한 감정의 강물을 막아야 한다고
그것이 수배자의 수칙이라고 믿었건만
오늘은 독이 무너지고 맙니다

몇 달만의 전화에서
울먹이는 어머니 때문에
참다 참다 나도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려셨겠지요
자식에게 눈물 안 보이시려고
의연한 모습 보이려고 하셨겠지요
허나 품 떠난 지
몇 해째 되는 자식을 두고
오늘은 어쩌지 못해
어머니 가슴의 둑도 무너져
울음바다가 돼 버리신 거지요
아, 이럴려고 전화 드린 건 아닌데
안심하시라고 드린 전환데
아, 이러시려고 하신 게 아닌데
자식에게 믿음을 주시려 했는데…

유병문

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중.
현재 조계사 농성중. <수배일기 5-무너지는 둑> 중에서

김 영삼 정권시절 정치적인 이유로 수배를 받은 수배자 9명이 300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계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조계사는 고즈넉했다. 넓은 그늘을 치마폭처럼 두르고 있는 대웅전 앞의 고목 아래 앉아 땀을 식히며, 이 그늘이 불당안의 부처님보다 더 부처같다는 생각을 했다.

고마운 그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모님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고풍스런 불당들을 거쳐 뒤큰으로 가 보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허름하나 단단해 보이는 천막과 되는대로 정돈해 놓은 가재도구들. 그리고 천막생활에 익숙해진 야인(野人)들. 컴퓨터에 앉아 문서작업을 하는 청년. 둘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청년들. 런닝셔츠 바람으로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는 청년. 그리고 그 청년들 사이에 고운 생활한복을 입고 단아하게 앉아 계신 어머니.

7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오창규씨 어머니, 김평님(55세).

어머니에겐 두가지 모습이 있었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신 오종렬님(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아내로, 거친 다섯 아들(원래의 네형제에 ‘개는 내 양아들이요’ 하고 말씀하시는 강위원까지 합쳐 모두 다섯형제)의 어머니로 살아 오며 가지게 된 강인함과 남도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와 마르지 않는 깊은 눈물샘을 지닌 수녀분함.

“큰 일들을 넘어가며 살다본께 참을만큼만 시련이 있었습디다. 어제 전교조 대회에 참석해 보니

차암 기분이 묘하고…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서울서 학교 다니는 세째한테는 근 6년간 한 번을 찾아 가 본일이 없는데,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고 있는 둘째는 한번 봐야 발 길이 떨어질 것 같길래 들렀죠. 이제 나이도

리고 마침내 93년에 그는 제1기 남총련(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수배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남총련 의장으로 김영삼 정부의 실정을 반대하는 술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였다.



▲ 조계사에서 아들 오창규 군과 함께 선 김평님 어머니

먹을만큼 먹었은께 그만 수배가 해제됐으면 좋으련만…스물 셋만 되었어도 이렇게까지 시간 흐르는 것이 안타깝지 않을 것인디, 벌써 서른 셋인께…”

전남대 86학번인 오창규님이 수배자가 된 것은 93년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다.

오창규님이 87년 민주화항쟁을 경험한 후 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것은 91년 이었다.

91년. 강경대 열사가 경찰폭력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이어 전남대 박승희 학생의 분신. 그로부터 이어지는 술한 열사들의 분신 행렬은 복학생인 오창규씨에게 ‘어머 어마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91년의 뜨거웠던 5월은 오창규씨를 도서관에서 거리로 불러냈고,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은 그를 과 학생회장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끌어갔다. 그

7년째 수배생활. 어떤 해는 2년동안 단 한번도 집에 전화를 하지 못하다 그리움이 쌓이고 쌓여 한통의 전화를 하기 위해 숨어 생활하던 대구를 벗어나 대전까지 가서 전화 한통을 하고는 다시 대구로 돌아왔다는 수배생활. 그런 긴장과 설움과 분노의 수배생활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5분의 1이 넘는 시간을 바쳐야했다.

“아마 우리 애기들은 80년부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서 있었던 거 같습니다. 5·18 당시 애들 아버지는 전남고 교사였는데, 아침이면 거리를 휘젓고 다니다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 제자들 다 죽는다’며 한숨을 깊이 내쉬며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며 자랐으니… 게다가 할아버지도 동경 유학시절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니 집안 분위기가 워낙에 좋은 길 두고 가시밭 길을 가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87년까지만 해도 집안은 평화로웠다. 5·18에 대한 깊은 회한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오종렬선생님은 그런대로 교사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집동이’로 자라던 쌍둥이 형제 정규, 창규씨가 나란히 전남대에 입학을 했다. 형 정규씨는 공과대학에, 창규씨는 심리학과에. 그리고 셋째, 넷째 아들들도 별 문제없이 쑥쑥 잘 자라주었다. 집안 가득 채우는 남편과 아들들의 결직한 목소리가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던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그러나 87년 큰 아들 정규씨가 민주화 투쟁



에 나섰다. 최루탄을 맞아 광대뼈가 내려 앓는 사건을 시작으로 잔잔하기만 하던 집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정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어머니는 한열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 내내 눈물을 그렁그렁 이고 뛰어야했다. 어머니가 달려가는 동안 민주의 바람이 아마도 어머니의 뒤를 쫓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89년엔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대대적인 해직이 자행되어 당시 오종렬 선생님은 해직되었으며 연이어 전교조 결성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 정신이 아득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맥놓고 있을 수 만은 없어 어머니는 거리로 나섰다. 당장 생계가 문제였다.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을 쪼개어 알뜰하게 생활하던 '착한 전업주부'에서 온 거리가 가게인 '보따리 장수'로의 전환.

전교조 물품을 받아 전남대에 가판을 설치하고 장사를 시작했다. 가까이에서 전남대 학생들을 보며 어머니의 생각은 또 많이 바뀌었다.

“밖에서 보면 데모하는 애들이 좀 거칠고 강하게 보일란가 몰라도 실제로 대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동권 애기들이 오히려 더 착하고 순수합니다. 한 5년을 보따리 장사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정규는 공대 학생회장하고 창규는 전남대 총학생회장하고 그럴 때 애기들 먹으라고 음식도 해다 주고 했은께. 우리 애기들이 홀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은께 그렇게 했지요. 또 장사하다 말고 우리 아들들이 선거 유세한다고 하면 다 쫓아가서 들었어요. 그러다 우리 창규가 남총련 출범식이 있기 전 날은 나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더란께요. ‘어머니, 내일은 어머니가 오셔서 직접 머리띠를 매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으니 오셔서 어머니

손으로 제 머리에 머리띠를 해 주세요’ 이렇게요. ‘알았다’ 하고 가서 머리띠를 매 줬지요.”

그 후 정규씨와 창규씨는 모두 수배자가 되었고, 언제나 다 큰 아들들로 옥시글대던 집안은 썰렁해졌다. ‘5살때까지는 궁둥이 한 번 두드리는 일 없이’ 키운 두 아들들이 모두 집을 비우고 나니 집안은 빈 집 같았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불안감이었다.

“구속이 되었으면 생사여부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의문사 사건이라도 터지면 아주 초죽음이 됩니다. 자다가도 숨이 끊어지는 것 만 같아서 깜짝 놀라 일어나곤 했다니까요. 어쩌다 전화가 와도 반가운 마음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 내가 먼저 얼른 끊으라고 재촉을 한단께요.”

그리고는 마당에 나와 보고싶은 마음에 별을 보고 영영 울곤 하던 시간들.

오창규씨는 김영삼 정권기간 내내 5년간 수배자로 생활을 해야했다. 가슴 졸이는 수배기간이었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 다소 마음의 긴장이 풀어졌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으니 수배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 때는 수배자에 대한 명단을 삭제해 수배해제를 했고 김영삼 정권 때에도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 방식으로 수배해제를 단행했으므로 스스로를 ‘인권 대통령’이라 칭하는 김대중 정부는 좀더 획기적인 단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60여명의 정치 수배자들은 아직도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밥 한그릇이 그리운 ‘어두운 거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석방시킨 전두환과 노태우가 활개를 치며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정치수배자들 중 9명이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은 작년 8월이었다.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농성기간이 길어지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여전히 '선별구속'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수배해제 하겠다는 얘기다.

분노한 어머니들은 지난해 10월 수가협(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을 결성했다. 직접 나서 감옥 아닌 감옥에서 '만기없는' 구속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딸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였다.

"한달 가까이를 매일같이 정부청사로 쫓아가 엄마들이 악을 쓰고 시위를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악을 쓰기도 하고 전경들이 막을때면 돌맹이를 집어 법무부 창살을 두들기며 '국가 보안법 철폐하고 내 아들 내놔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했습니다. 여럿이 모이면 여럿이 가고, 둘이 모이면 둘이가고, 셋이 모이면 또 셋이 가고 한계 나중에는 형사들이 물습니다. 아줌마들 일당 얼마씩 받길래 그렇게 하루를 안빠지고 오느냐고요. 그 말이 하도 기가 막혀 냅다 소리를 질러 줬습니다. '이 놈들아. 우리는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수 없는 내 자식들을 받으려 온거다.'"

작년 11월, 12월에도 어머니들의 마음은 한 시도 편할 수가 없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법란이 일어 조계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형사들이 조계사에 상주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농성자들은 삭발을 하고 있어서 스님들과 구분이 되지 않아 잡혀갈까 어머니들은 노심초사였고, 겨울의 찬기운을 두배 세배로 느끼며 겨울을 지내야했다.

"1월에 대통령 부부와 민가협 어머니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희호 여사를 만나 손을 잡고 내가 아주 울며불며 애원을

했어요. 이제 제발 수배해제 좀 해서 우리 아들, 딸들 제대로 좀 살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네요."

5년간은 보파리 장사를 하고 또 5년은 가게를 얻어 생활한복을 팔며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들을 기다리며 살면서도 아침마다 '바위처럼'을 틀어놓고 가게 앞을 힘차게 쓸며 '내 아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께 나는 떳떳하다'며 힘을 얻었다는 씩씩한 어머니의 얼굴에 언뜻 진한 실망과 아쉬움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어머니의 바램은 하나다.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한총련 아이들 어서 빨리 풀어 주세요. 나라의 기둥되는 우리 청년들, 의로운 생각으로 나섰는데 제 자리에 바로 서게 해 주세요. 그들이 매국노의 길을 가거나, 나라를 도둑질하거나, 독재에 아첨하거든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또 갈라진 나라를 기어이 토막내려 하거든 엄벌해 주세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애국의 길로, 민주의 길로, 통일의 길로 가고자 하거든 큰 가슴에 품고 어루만져 주세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머님이 쓰신 편지 중)

어머니는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새벽녁이면 집을 나서 오봉산에 오른다. 오봉산에 올라 무등산 쪽으로 덩실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며 매일 기도를 올린다.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똑같은 이름으로 시작된다. '우리 창규……'

소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만 보아도 '너희도 세찬 바람을 맞아 이렇게 떨어져 나왔구나' 하는 측은한 마음과 함께 '한총련 얘기들' 생각이 저절로 난다는 마음 넓은 어머니와, 아침이면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들의 마음속에 그리는 소박한 정토세상을 두 손 모아 기원하며 조계사 정문을 나섰다.



“생명을 내걸 때는 아무것도 두려울게 없어요”

구술 최선목 / 정리 유현미(후원회소식 편집부)



▲ 삼주가 막 돌아난 형제의 집 작은 텃밭 앞에서.
옆에 앉은 이는 함께 살고 있는 최수일 선생님.(5월 15일)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351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음력으로 1928년 7월 17일에. 스물셋까지 거기서 살았지. 다섯 형제 중에 막내였고,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젊어서 죽었어요.

보문사 있는 석모도가 고향이에요. 요즘 사람들 많이 가지. 지역 살면서 보문사 눈썹바위 생각하며 시도 쓰고 그랬어요. 내가 고향에 살 적에 석모도에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등대는 고기잡이 배들이 길 잊지 않게도 해 주었고, 북한에서도 그 등대가 보였는데, 요맘때 개성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곤 했어요. 순례를 하는 거지. 개성에서 아예 배를 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랬다고. 불공도 드리고, 고깔을 쓰고 북이랑 장구 치면서 절을 한 바퀴 돌고는 했어요. 그 모양을 구경하려고 나 같은 아이들이 몰려가곤 했습니다. 일하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산을 넘어 구경하러 가고 했지. 우리도 저렇게 한 번 놀아봤으면, 하고. 서울에서도 인천 거쳐서 교동 지나 오고 그랬지.

석모도는 낙조, 해 지는 모습이 일품이었어요. 여름에 커다란 해가 떨어지는데 물이 해 위에 있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지. 저녁에 낙조 구경이 아주 좋았어요. 그 때 소를 방목해서 길렀거든. 섬이니까 그냥 놔 두면 저녁에 아이들이 소를 모는 풍경이 아주 흔했지. 나도 많이 했습니다. 저녁이면 한 곳에 불들

어 매 놓고, 아침에 다시 풀어 놓고.

(소 돌보는 일) 하기 싫었어요. 놀고 싶은데. 가을 서리 내리고 나면 아주 춥거든.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니 춥지. 그런데 소라는 짐승이 자기 주인(소 먹이는 아이)을 알아봐요. 눈치도 빠르고. 논두렁 갈 때 사람이 안 보는 틈에 슬쩍 벼도 베어 먹어요. 비 오면 다리를 꽉 벌리고 서 있지요. 자기 몸 아래로 들어

와 비 그으라고. 소가 영물이요. 소 등에 타고도 많이 다녔지. 해방 전 열두, 세살 무렵까지는 그렇게 소하고 놀았다고 봐야지.

열여덟에 해방을 맞았어요. 그 전에 대동아 전쟁 일어났을 때 징용에 해당하는 나이라, 그거 모면하려고, 우리 부락에 살던 경방단 부단장 하던 사람에게 아버지가 따로 부탁을 했지. 징용 안 가는 대신 그 집 심부름이며 농삿일을 했어요. 더렁더렁 놀기도 하고. 그 집은 잘 살았어요.

그 나이 때 꿈이 많았지. 공불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돈 있는 아이들은 책가방 메고 다니고 나는 지게 메고 나무하리 가고. 지게 메고 등성 마루에 앉아서 저 아래 학교에서 내 또래 애들이 조회하고 그러는 것 우두커니 구경하고 그랬어요. 애들이 교실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워서.

보통학교 4학년 과정까지를 야학으로 마쳤어요. 부

한국어 읽기 세션 4. 경찰과 산에 가면 사촌네 집에 가는 거보다 낫다

모님 일 도우면서 3년쯤 다녔지. 형들은 제대로 학교에 다녔어요. 나만 못 다녔지. 그 때가 우리 집이 가장 힘들 때여서.

일본애들이 가마니 많이 짜라고 시켜서 한겨울에도 윈종일 온 식구가 동원 돼서 가마니 짜고 그랬지. 겨울에도 내의 하나 입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딱 한번 입어 본 생각이 나긴 해. 신발이라고 해야 겨우 짚세기 걸치고 다녔지. 양말도 없었어. 베선이 있긴 했지만 목만 남고 발바닥은 다 떨어진 거였고. 신 얘기 하니까 고무신에 얹힌 사연이 하나 생각나네요. 멱 감다가 물에 빠져 죽은 친구가 있었어요. 새로 산 고무신 신고 멱을 감다가 그런 변을 당했지. 친구 어머니가 나중에 그 고무신을 나를 쥐셔 신어 봤지.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어떤 곡이든) 한번 턱 들으면 그대로 따라 부를 수 있었으니까. 농촌에서 모내기할 때 나는 모는 안 심고 뒤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른들이 좋아했지. 음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웬만한 우리 나라 민요는 다 알고 유행가도 잘 불렀고. 그 때가 열두, 세살 무렵이야. 어른들이 깜찍해 했지.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모 심던 아주머니들이 자기들 뒤에서 노래하라고 그랬으니까.

감나무 위에 올라가 감잎을 따서 말아서 불기도 했어요. 그러면 감나무 아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있다가 내가 감잎으로 부는 거 듣고는 좋다고 했습니다. 열서너살 때 대나무로 단소도 직접 만들어 불고 그랬어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손으로 자꾸 무얼 만들게 하면 좋을 것 같애. 손을 계속 움직이게 하면 아이들 교육에 좋을 듯싶어요. 어려서 친구 애들 팽이를 얼마나 많이 깍아줬는지 몰라. 벤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어.

아이 때도 무엇을 남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있었어. 그때는 농촌에서 처녀들이 널뛰기를 많이 했지. 널뛰는 장소도 만들어주고, 5월 단오 되면 그네도 매 주고 그랬어요. 좋아들 하지. 요맘때는 싱아 먹을 때야. 싱아를 한아름 꺽어다가 누님뻘 되는 아가씨들 갖다 나눠

주면 좋아하고. 또 싱아를 돌 위에 놓고 불 때서 익혀서도 먹었지. ‘싱아찜질’이라고 했어요. 가을이면 밤도 따다 나눠 먹고. 그때 산엔 가재가 참 많았어요. 그거 구워 먹고, 갑자 서리해 먹고. 그러고 나면 든든하지! 집에 내려가야 맨날 죽만 쓰는 거라. 먹기 싫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 따 먹고 했어. 그래서 “산에 가면 사촌네 집에 가는 거보다 낫다”는 말도 있었어요. 나뭇짐 지고 산에 술하게 오르내리면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해방 되고 어른들 만세부를 때 정신없이 따라다니며 함께 만세 불렀지. 제일 통쾌했던 거는, 학교 -내가 다니지는 못했지만- 에 다 모였는데 경찰 주임이 무슨 연설인간 하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저 놈 잡아라,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그놈 잡아서 혼내줬지. 면서기네 집에도 가서 숨어 있는 면서기를 뒤져서 찾아내고 혼내주고. 그 집에 가 보니 쌀이랑이 그득~해요.

46년에 남의 집 일 그만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 무렵 남로당 활동이 강화도 일대에서 굉장히 활발해 이승만이가 “강화에서 왔다 하면 무조건 체포하라”고 할 정도로. 나는 큰 건 못했지만 심부름 좀 하고 그랬지. 그리고 46년도부터는 북한 소식이 다 들렸어요. 강화도가 가깝잖아. 그 때 3·7제 토지개혁 소식도 들은 거라. 농민들이 토지의 주인이 된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강화도에서는 실제로 토지개혁이 실시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1500평 땅을 갖게 되었으니! 쌀 10가마가 나면 7가마를 내가 갖는 거지. 진짜 좋구나,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48년에 아는 사람이 소개해서 결혼했어요. 50년도 껴지 2년 살았지. 전쟁이 일어나서 인민군 대가 우리 고향에도 왔는데 전투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갔어요. 인민군 1기, 2기, 지원해서 나갔고, 3기 때는 직접 동원되어 나갔지. 딸아이 둘 지난 거 보고 떠났어요. 맥아더가 인천에 상륙하는 바람에 후퇴해서 중국까지 갔었어요. 51년 1월에 다시 우리 나라로 왔지. 고사포 부대에 근무했는데 후방에만 있었습니다. 주로 미국놈들 비



행기하고 싸웠지.

이제야 알았는데 아내가 보통 피해를 당한 게 아냐. 사형장까지 끌려 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말려서 겨우 살 아냈고. 그래도 하도 괴롭히고 하니까 54년엔가 재가를 했대요.

전쟁 중에 군중 문화사업을 했는데 악기를 만들었어요. 포화를 쏘면서도 화선악기를 만들었지. 거문고, 가야금 같은 고전 악기 일체를 다 만들었어요. 포화 속에서 만든 악기라고 '화선' 악기예요. 정전 후에도 군중 문화사업은 계속 했습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에서 내가 속한 데가 뽑힌 거라. 고전 문화 부문에서. 그래서 300여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녔지. 두 세시간 공연인데 약 2년 동안을 그 일에 매달렸어요. 전쟁 때 고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당에서 지시가 있어서 몇 개월 연습도 했습니다. '민요대창'이라고, 14명이 함께 민요도 부르고, 젓대(통소)도 부르고. 머리도 이렇게- 길러 가지고.

북에서 57년에 제대할 때 국가에서 생활 보조금을 줬습니다. 무연고자니까. 얼마였나면 2만원. 양복 한 벌 사 입고 결혼식 치를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군대 있을 때 사귀던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직장(악기제작소)에서 결혼시켜줬지.

제대 후 평양 예술문화극장에 배치됐지만 거기 안 가고 목재가공공장으로 갔어요. 악기 만들 생각으로. 잘 안 돼서 58년도에 함흥으로 가서 악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어요. 군대에서 함께 화선악기 만들었던 사람들이 모델이 돼서 평양 국립악기제작소가 생겨났지요. 각 도별로도 제작소가 있어서 악기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폐졌지요.

어려서 하던 가락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상쇠며, 북, 징, 장고를 칩니다. 대학에 가 보니까 지금 아이들 하는 거는 조금 다르대요. 나 어려서는 두레 다니면서 익힌 실력으로 모낼 때나 김멜 때, 또 가을 추수 때랑 대보름에 한참 놀구 그랬지.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서. 징역 살

면서도 곡(曲)이 머리에 떠올라요. 이걸 작곡을 못하니 안타까운 거라. 우리 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게 아쉽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제작소에서 악기 만들던 중 당에서 공부 좀 하라고 했어요. 59년에 간부학교를 1년 다니면서 정치공작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시켜주니까 참 좋았어요. 그토록 하고 싶던 공부였으니. 그 뒤 1년 남짓 당 사업을 했고.

생명을 내걸 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거는 정의이고 양심이니까. 여기 와서 잡혔을 때 백지 한 장과 사형장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종이에 전향서를 쓰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장으로 진행이라는 뜻인데,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죠.

요즘 운동하는 젊은이들? 전술과 전략을 좀 잘 쌓았으면 좋겠어요. 투쟁이라는 것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데. 구호도 제때 나오고 그래야지. 김대중 물러가라고 하는데 그럼, 김대중 말고 누가 있느냐 내가 물으니까 대답 못하지요. 그리고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강화도에 가고 싶지. 고향은 고향이니까. 하지만 나에 대한 동네 사람들 인식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라… 우선은 조건만 된다면 곤란한(아픈) 사람들 치료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내가 살아 있구나, 살아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느끼고 싶어요. 침술을 조금 아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일 사업에 몸 바치는 거. 구체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묻거나 대화를 원할 때 그것에 응하고 싶고.

최선숙 선생님(72)은 1928년 7월 17일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학에서 글을 깨우쳤고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에 입대했어요. 함흥에서 악기 만드는 일을 하다가 1962년 8월, 고향에 왔으나 조카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를 선고 받고 37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월 25일 다른 장기수 선생님들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북한에 아내(61)와 두 딸(41, 38)이 있고 남에도 딸(51)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 성공회 "형제의 집"에 살고 계십니다.



학생자치단체를 이적단체라 억지 부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김은정 · 한국과학기술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학부과정 산업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보라색 손수건을 두른 어머니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을 비디오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여하니 감격스럽습니다. 6년 동안 쉬지 않고 매주 집회를 한 어머니들의 노고로 우리사회도 양심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야만성을 인정하게 된 것 이겠지요. 민가협 어머님들의 쉼없는 투쟁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존재하고, 군사독재시절에나 있는 줄 알았던 조직사건이 진행되고 있군요. 바로 저희 학교, 한국과학기술의 메카 과기대에서도 조직사건이 조작되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저희 학교 출신 두 선배가 대전 보안수사대에 강제연행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그들이 이름하길 '아침햇살 자주대오 조직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벌써 아홉 명의 선배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다섯 명의 선배들이 구속되어 지금 대전교도소에 갇혀있습니다.

아침햇살은 시사해설 소모임이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교정 곳곳에 붙어있는 대자보를 한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대학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고, 학내 여론을 형성하며, 자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연구도 해보는 이들의 모임은 어느 대학이나 있고,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은 대학인의 학생자치권에 속합니다. 아침햇살이 바로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은 지하이적단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기대 2천 5백 학우들이 아침햇살을 다 아는데, 그런 지하단체도 있습니까? 아침햇살이 발간한 정기간행물, 대자보, 자료집 그런 것들이 이적표현물이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읽은 수많은 과기대 학우들은 이적표현물 탐독죄로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됩니다. 멀쩡한 공개 학생자치단체를 지하단체로 둔갑시키고, 과기대 학우들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번 '아침햇살 자주대오 조직사건'입니다.

왜 정권은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을 조작해내는 것일까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실형 판결율이 30% 정도됩니다. 그에 반해 공안 사건의 경우 실형 판결율은 3%에 불과합니다. 죄없는 사람을 그만큼 잡아간다는 뜻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면 승진과 포상이 뒷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투쟁하는 학생들을 잡으려는가, 그건 왜 정권이 아침햇살 자주대오 조직사건을 조작해냈는지에 대한 답도 될 것입니다.

학생자치단체를 이적단체라 억지 부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고 조직사건 조작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의 교도소에 있는 수백의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해야 합니다.

이글은 지난 5월 27일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 김은정 학생이 발표한 글이다.

맞이한 기억도 없이 봄을 배웅하다

이득행 · 회원

이른 아침. 잠깨어 눈을 뜬다. 눈만 뜬 채 자리에 누워 있다. 어제(토요일) 늦게 잠들었는데 너무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닌가? 아. 산행! 오늘, 후원회 산행이 있구나… 그렇다면 산행 때문에? 이른 오전 6시가 채 안 된 시간에 잠을 깬 까닭은?

그건 아닐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후원회 산행을 기다려 본 적이 있었던가? 예전의 눈

물나던(?) 기다림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산이 싫어서도 벗들에 대한 그리움이 예전 같지 않아서도 아닐 것이다. 기다림을 밀어내던 술한 시간들. 어느덧 산과 벗들의 단단한 가슴에 묻혀 거름조차 되지 못한 채 아우성치던 고왔던 웃음들.



창 밖에서 손 흔들며 떠나는 봄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हड्डन은 푸르다. 벌써 이해 봄도 끝물인가. 맞이한 기억도 없이 봄을 배웅하다니.

확신도 없이 배낭에 손이 간다. 뚜껑을 열고 필요한 장비들을 만져 본다. 손끝에 닿는 두려움.

오늘의 산행을 한다는 확신도 없이 낙성

대행 전철을 탄다. 집에서의 망설임이 길어 약속시간을 15분이나 지나 약속장소에 도착한다. 아무도 안 보인다. 오전부터 덥다. 아는 얼굴을 찾는다. 약속장소의 반대편에서 백현종이 손을 흔든다. 선생님들께서 먼저 와 계신다.

10시 40분 경에 출발이다. 오늘은 관악산이다. 후원회원 8명, 선생님 12분. 모두 스물이다. 햇빛과 더위만으로 셈한다면 봄이 아니다. 이미 여름이다.

권주환 선생님께선 산행 차림이 아니다. 오랜 동지들을 만나러 나왔다 동지와 벗들의 권유에 못이겨 산을 오르기로 하신다. 구두와 지팡이 모두 산악용이 아니다. 그러나 난 안다. 선생님께선 구두와 지팡이로 살아오신 게 아니란 것을.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2시간 여 된 12시 30분 경. 연주대가 멀리 보이는 너른 바위에 점심 밥상을 차린다. 모두의 배낭은 화수분 같다. 아무리 꺼내도 음식은 또 나온다. 음식이 사람 앉을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 모두는 뒤로뒤로 물러앉는다.



여행을 위한 유풍 음식

여행을 위한 유풍 음식은 여행을 즐기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추에 쪽갓을 얹고 큰 술로 밥 한 술 펴 넣어 된장을 뚝 떠서 바른 다음 비단으로 옥을 써듯 상추를 여미어 입안으로 밀어 넣는다. 상추쌈이 너무 커 입아귀가 얼얼하다. 지그시 깨물자 입안 가득 찬 산내음 산내음. 선생님들께 가장 맛난 반찬은 뭐니뭐니 해도 정겨운 담소. 무슨 할 얘기들이 그리도 많이 쌓인 것일까. 모두의 볼이 발그레한 것은 따가운 햇살 탓만은 아니다. 이미 한 두 차례 막걸리잔이 돌고 난 후였으니.

포식 후의 포만감 그리고 달콤한 잠의 유혹. 20여분간의 잠. 그늘을 찾아 듯자리 대신 신문을 깔고 눕는다. 눈을 감자, 어쩔거나 난 이미 한 그루 잠든 나무다.

자기소개. 지난 2월 25일 풀려나 갈현동 만남의 집에 살고 계시는 우용각 박완규 장병락 선생님들의 감회는 남과 다른 듯.

다시 연주대를 향한 발걸음 점점 가파르고 오르기만 하는 산길. 선생님들께선 잘도 걷는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저만한 세월의 무게이면 지칠 때도 되련만…아직도 소년의 몸짓이 대부분이니. 수십 년을 비바람 속에 서면 사람도 신의 경지를 아는 걸까. 서두는 법도 없이 태연하게 소년의 몸짓으로 세월의 허망함을 산 속에 감추는 마술을 부리다니. 육신의 불편함도 방해하지 못하는 큰 몸짓이 아직도 활기에 넘치다니.

연주대(戀主臺). 어떤 선비가 기운 권력을 잊지 못하여 옛 군주를 그리워하던 곳. 차라리 만인을 위한 음악을 연주(演奏) 하던 곳(臺)이었으면 나았을 걸.

연주암(戀主庵)가는 길을 바쁘다.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산봉우리에 올랐건만 햇살은 가까워지고 바람은 더 멀어진다. 과천을 향해 산을 내려간다. 오르는 길보다 더 가파르고 험하다. 이세균 선생님의 땀이 더 잦아진 건 오랜 시간의 산행과 더위 탓이다. 벌써 오후 6시. 8시간 째 산길을 걷고 있다. 놀라운 것은 표정에 변화가 없음이다. 그러나 길은 한참이나 남아 있는데. 걱정이다.

오후 7시. 산길을 지나 과천시에 도착한다. 그리고는 '우리집을 못 찾겠네요'에 들려 늘 장기수 선생님들의 친근한 벗으로 함께 하시는 한지흔 선생님이 해주신 푸짐한 음식을 먹으며 뒷풀이를 했다.

6월 산행



- 일자 : 1999년 6월 20일 오전 10시
- 어디로 : 수락산
- 모이는 곳 : 당고개역(지하철4호선) 1층 로비
- 준비할 것 : 맛있는 도시락, 시원한 물



한국의 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연합 발족식을 다녀와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를 향하여

이기욱 · 변호사/민변 동북아시아특별위원장,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양심수후원회 제11차 정기총회의 뜨거운 열기와 새로운 다짐을 가슴에 품고 일본의 '한국 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 (약칭 전국회의) 결성식에 참석하여 양심수후원회와 상호 교류 및 연대의 폭을 넓히고자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도오쿄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이 정기총회 이틀후인 4월 27일 낮이었다.

'전국회의'는 결성식에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을 초청했으나 권 회장님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신 가게 되었는데, 이 때가 일본의 황금연휴 기간이어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수만명이 관광을 하러 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만석이라서 못갈 뻔했는데 오오사카에 살고 있는 양심수 이철씨 장모님 조만조 여사(민가협 공동의장과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역임) 덕분에 가까스로 표를 구해 가게 되었다.

양심수후원회가 국내의 인권단체와 함께 지난 10년 간 양심수 석방사업을 끈질기게 추진해온 결과 금년 2월 25일 대통령 특사로 우용각, 조상록 선생 등을 비롯, 19명의 장기수 선생님들이 석방됨으로써 장기구금 양심수 260명중 258명이 석방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가 그 사명을 다한 것으로 보고 최근에 단체를 해소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한국의 양심수를 지원하고 석방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금년 4월 28일 저녁 6시반에 도오쿄오 시내 풍도 구민회관에서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 결성식을 하게 되었다.

'전국회의' 대표는 중학교 역사 교사인 와다나베 선생님이고 고문은 김대중 대통령 구원활동을 많이 한 것

으로 유명한 요시마쓰 목사님이며 사무국장은 노동자 이시이씨이며 총무·회계 고찌도루씨등 구성원들이 과거의 전국회의 구성원과 거의 같았다. 김삼석·김은주 남매 사건으로 나와 인연이 깊은 사람들중에 오자와씨는 몸을 다쳐 참석을 하지 못해 안타까웠고 현재도 이화춘씨 구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구찌씨와 고꾸레씨와 마쓰이 변호사가 정말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었다.

전국회의 결성식에는 100명 가까운 인권활동가와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재일교포 청년들도 약 20여명 이상 참석하였다. 와다나베 선생님의 인사말과 요시마쓰 목사님의 민중연대와 미·일 신가이드라인 반대등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일본 종의원 사사끼 의원, 최철교 선생님, 한통련 의 손세일씨등의 순서로 한국의 인권상황, 분단상황, 신가이드라인의 문제점,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판등으로 1부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어 2부 순서로 내가 양심수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김대중 정부하의 한국의 인권상황과 지속적인 국제연대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 약 1시간 이상 강연과 질의 응답을 하였으며, 통역은 일본에 도착할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2박 3일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며 헌신적인 안내를 해 주신 가또씨가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셨다(가또씨는 연세대 어학당에서 공부한 후 약 5년간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의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남편이 한국의 대학에서 일어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권오현 회장님을 대신하여, 국경을 넘어 정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에 헌신해온 요시마쓰 목사님과 와다나베 선생님을 비롯한 전국회의 회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한일 양국사이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라는 지난날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바로잡는 토대위에서 인류가 지향해온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민족의 자주성 존중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계속적인 국제연대를 기대하며 전국회의의 사업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낭독하였다.

전국회의 회원들은 장기수 선생님들의 건강문제, 만남의 집등 공동체 생활의 실태, 양심수후원회 총회의 분위기, 현재 구속된 양심수 현황 등에 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국회의 결성식이 끝나고 자리를 둑겨 맥주나 정종을 마시면서 여러 회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특히 재일교포 단체인 한통련 청년들의 뜨거운 민족애를 재삼 마음속 깊이 느꼈고 김대중 대통령의 납치사건 후 그의 구명운동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오랫동안 애써온 한통련(현재도 반국가 단체로 되어 있음)의 명예회복이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었다.

일본 방문 첫날 나리따 공항에 내려 마중나온 가또씨와 같이 도쿄오 시내 우에노 공원 근처 호텔에 가서 여장을 풀 다음 근처에 있는 골목시장과 우에노 공원의 호수를 한바퀴 돋 후 전국회의 사무국장과 총무·회계를 만나 양심수후원회의 활동과 전국회의 결성 상황등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다음날 미·일 신가이드라인 관련 주변사태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전에 대여섯번 도쿄에 갔을 때 가지 않았던 야스꾸니 신사를 일부러 다음날 오전에 방문하여 가또씨의 세심한 설명을 들으며 많은 것을 피부로 느꼈다. 야스꾸니 신사를 찾아 참

배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아주 진지했으며 많은 유물들 중에는 군견(개)과 말의 동상까지 있었으며 가미가제식으로 자폭하였다 인간(이 탄) 어뢰정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전시관의 많은 설명들을 종합하면, 예상한대로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일본군과 국민들이 많은 희생을 하였으며 그들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 따라야 한다며,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동아시아의 국가나 민중의 피해는 전혀 도외시하고 있어서 마침 그날 통과된 미·일 신가이드라인(주변사태법안)이 의도하는 바대로 남북한이 다시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참혹한 전쟁의 피해를 겪을 개연성이 많았다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동북아 평화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자나 인권단체 시민단체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주체적으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긴요하다고 새삼 느꼈다.

오후에는 도쿄오 시내에 있는 일본의 진보적인 변호사 단체의 대표격인 아즈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동북아시아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방문하여 지난 2월에 오끼나와에서 개최된 한일 변호사들의 미군기지 문제 토론회등에 관한 이야기와 앞으로 민변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진행할 사항들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저녁때 전국회의 결성식에 참석하고 뒷풀이를 한후 호텔에 돌아와 서울에 전화를 하려고 전화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잘 되지 않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1,000엔짜리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거의 무한



인권운동의 역사속으로

정 외국에 통화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 사용방법을 아주 어렵게 바꿨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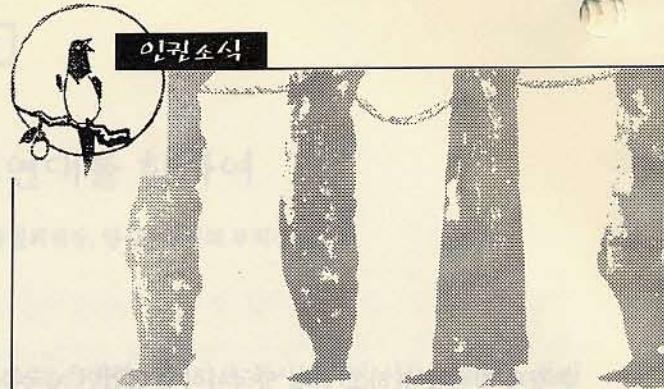
그런데, 내가 묵었던 호텔이 서울에 직통전화를 할 수 없는 곳이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리며 다음날 귀국후 오후에 진행될 재판상황을 머리속으로 짚어보며 아스라이 꿈속으로 빠져 들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전국회의 대표와 사무국장 등이 꼭 양심수후원회 소식지를 매달 2부씩 보내달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곱씹어보며 한국의 양심수를 위해 일본에서 불철주야 많은 애를 쓰시는 전국회의 회원들께 정말 고마운 생각이 새삼 들었으며, 이번 도오교오 방문중 나의 일정을 세심하게 돌봐준 전국회의 대표와 다나베 선생님, 이시이 사무국장, 안내 가또씨등 회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전국회의 결성식 장면등을 내가 가져간 사진기로 몇장 찍었으나 아쉽게도 광선이 들어가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회원 여러분께 정말 미안합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홍한솔(서울시 흥제3동) 정은영(서울시 화곡1동)
 김영화(영동세브란스 병원) 최영철(강원도 영월군)
 정길수(강원도 영월군) 김혜경(경기도 고양시)
 문장열(서울시 수색동) 김진숙(서울시 금호1가)
 제주 '인권지기'(제주시 이도2동)
 최낙범(서울시 불광동 불광문고)
 박영철(서울시 구파발동 박영철치과)



인권소식

한총련 대의원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 부족

- 대구지법,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기각

검찰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조치를 내렸다.

5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강태훈(제19민사부) 당직판사는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경북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김아무개씨 등 대구 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 가운데 김씨의 영장은 기각하고 나머지 13명의 영장과 관련기록은 검찰로 되돌려보냈다.

강태훈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해 김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기각 및 반려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제7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30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말까지 검거할 계획이었다.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검사의 보안관찰 청구 기각

- 방양균 씨 공개적인 활동으로 보안관찰 실익이 없다고 판단

보안관찰대상자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활동으로 보안관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안관찰을 받지 않게 된다는 법무부의 결정이 났다.

법무부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방북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45)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씨가 출소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 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2월 25일 사면·복권된 점 등으로 볼 때 현재로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방양균씨는 89년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방씨는 “보안관찰 적용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 대상자 신고를 거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보안관찰대상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등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보안관찰 처분 결정을 받아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수감중이다 지난해 8·15 특사 때 풀려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민애전 사건),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씨는 5월 7일, 자신들을 보안관찰 대상자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보안관찰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특히 “준법서약서까지 쓰고 풀려난 출소자에게 또다시 재범 위험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 보안관찰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법 적용과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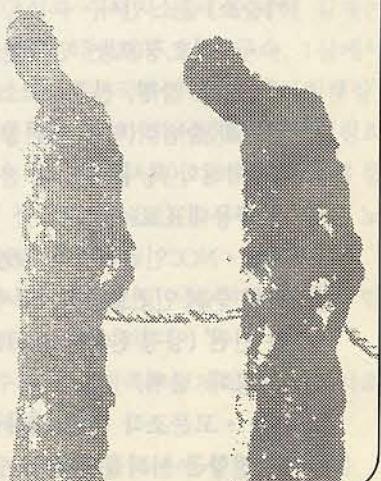
미결수 수사와 재판'시'

수의착용 위헌 판결

현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5월 28일,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미결수에게 강제로 수의를 입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의는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바깥으로 나올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수의)를 입게 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치소내에서의 수의착용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 1 . . . 세계노동절 109돌 기념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 (민주노총 주최/서울역 광장) 3만여 노동자와 시민·학생, 기념식 갖고 명동 성당까지 거리행진.
- . . '민중생존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공동)
- 2 . . . 홍명기 선생님 댁 방문.
- 3 . . . 민가협 등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정부의 '집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여의도 국민은행 옆).
- 4 . . . 고려대 '정치경제학 동아리연합' 주최 '정순덕 선생님을 위한 주점' 방문(고려대)
- 5 . . . 최선웅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성인병 예방 연구회' 집들이
- 6 . . . 민가협 279회 목요집회. 집시법 개악안 철회 및 집회·시위권 보장을 위한 집회로 한총목 전국 연합 집행위원장의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연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이들의 사례와 개악안의 문제점에 대해 박선후(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회원), 전 집시법 위반 구속자) 씨 발표, 출소 양심수 김희경(97년 한림대 부총 학생회장, 국보법 위반으로 1년 6월형 복역, 만기출소) 출소 인사.
- . . 최호경(92년 민애전 사건으로 구속, 20년형으로 감형, 전주교도소 수감중) 석방 추진 위원회 출범식(명동 전진상 교육관). 김승훈 신부, 이해학 목사, 이영숙 전 베네딕도 수녀원장을 공동대표로.
- . . NCC인권위원회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주최 인권토론회 '21세기를 맞이하는 교회와 인권' (양평 한화 리조트) 참가, '국가보안법과 교회' 발제.
- . . 고문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부산, 서 울, 광주 30여개 인권·사회단체 공동주관). 정의원의 부산 지구당(부산 북구·강서갑) 사무실에 항의서한 전달
- . . '민족화해자주평화통일협의회'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기자회견 결성식을 차례로 갖다(기독교 회관)
- . . 서울지하철공사, 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24명 파면, 공공연맹에 파견한 노조간부 2명 해임.
- 8 . . .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디스켓의 '변조'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고를 앞두고 구속자들에 대한 '반국가 단체 구성, 가입' (국보법 3조) 혐의를 '이적단체 구성, 가입' (국보법 7조) 혐의로 공소장 변경.
- . . '노촌 이구영 선생 팔순 잔치' (롯데호텔)
- 9 . . . 장기수 후원을 위한 주점(어울림산악회 주관, 천주교, 불교 장기수 후원회 후원/신촌 '클럽 쌍뚜')
- 11 . .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으로 정순덕 선생님 문병
- . . 마산MBC 라디오광장 생방송 인터뷰. 정순덕 선생님 병환과 낙성대 만남의 집에 대해.
- 12 . .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며 박경순 씨 등에게 '이적단체 구성' 등의 죄를 적용, 유죄판결.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과정 및 출력물 처리과정은 적법하다고 판결. 그러나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 자료,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음.
- . . 법무부, 오는 6월부터 모범수와 10년이 상 장기수를 대상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에게도 외출, 외박 허용하기로.
- . . 혜명양로원으로 임병호 선생님 방문.
- 13 . . . 민가협 280회 목요집회. 영남위원회 사건 선고

와 관련해 이은미 씨 아버지 발표, 한국과학기술원 '아침햇살' 사건, 김영삼 시절 정치수배된 아들에게 최원석 군 어머니 발표.

• • • 군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피의자 두홍균(37세)씨, 12일 새벽 1시경 유치장 내에서 갑자기 호흡장애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고 경찰측 발표.

• • • 사회단체 대표 43인, 교수 5인, 종교인 13인, 범조인 13인등 각계 대표인사가 참여한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 발표

• •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 폐지 촉구 기자회견'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주최/명동성당 들머리)

14 • • •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3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등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

• • • 민주노총과 청년학생 5000여명 대학로에서 '정리하고 철회 결의대회'를 열고 명동성당 까지 거리행진.

• • • 민가협 운영위원회.

17 • • • <후원회소식> 91호 발송.

• • • 검찰과 경찰,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과 간부 등 6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다. 또한 경찰은 금속연맹 조직국장 한석호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대우중공업 나양주 노조위원장을 불법파업 혐의로 연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이상춘씨를 파업주도한 혐의로 구속.

• • •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를 중심 사업화 하기로. 사형수 무기감형, 사형집행 유예 등 현실적인 요구하기로.

18 • • • 5·18 광주민주화운동 19주년. 기념 결의대회

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용산 미군기지까지 거리행진

• • • 구학협, 서울대 대동제 기간에 맞춰 양심수 석방을 위한 장터 열다.

19 • • • 구학협 서울대 장터, 동국대로 옮김

• •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으로 정순덕 선생님 문병

• • • 제1회 불교 인권 문화제 '99 이땅에 자비와 평화를' (대한불교 조계종 봉축위원회 주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주관)

20 • • • 구학협 장터(동국대)

• • • 양심수 후원회 5월 운영위원회(동국대 장터에서)

• • • 민가협 목요집회 281회. 동국대 장터에서

21 • • • <말> 6월호 양심수 5명에게 발송

• • • 법무부, 석탄일 맞아 모범재소자 1240명 가석방. 양심수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음.

23 • • • 양심수후원회 5월산행. 낙성대 지하철역, 아카시아 관악농선, 연주대, 연주암, 과천으로 내려와 '우리집을 못찾겠네요'에서 뒷풀이.

27 • • • 민가협 282회 목요집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적단체 관련 사건을 주제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사건에 대해 류한경씨 발표, 한총련 이적규정 부당성과 수배자 문제에 대해 김재돈 (97년 서울농대 학생회장, 1.14. 구속,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한국과학기술원 '아침햇살' 사건에 대해 김은정 학생이 발표, 영남위원회 사건 석방자 김이경, 김성란, 천병태, 이희씨 등 출소 인사. 산업대 문예페 '참사랑'이 좋은 노래로 함께함.

• • •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후원의 밤 행사(철학까페 '느티나무')

28 • • • 민족·민주열사 범민족추모제 준비 대표자회의 참석(향린교회)

• • • 양심수(기결수) 76명에 영치금 보내다.

- • •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개최 보장과 이적 규정 철회를 위한 민중연대 한마당' (경희대 노천극장)
- • • 44개 사회단체 공동회견, 김태정 법무장관의 임명 퇴진 요구.
- • •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소속 유가족 13명, 국방부 앞에서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을 요구하며 농성 시작.
- • • 경찰청, '유급자문변호사제' 도입, 불구속 수사원칙 등을 뼈대로 한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 마련에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행지시.
- 29 • • • 제7기 한총련 출범식 참석(경희대 노천극장)
 - • • KBS 수요기획 제작팀과 장기구금 양심수 문제 등 인터뷰
 - • • 경찰청에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한 학생들 무사귀가 보장, 경찰병력 철수 촉구
- • •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과 회원들 청량리경찰서 방문, 학생 연행과 구속에 항의하고 전남대학교 김진영 학생 면회
- 30 • • • '인권 개혁을 위한 캠페인'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주최/마로니에 공원)
 - • • 안학섭, 조창순, 양희철 선생님이 봉천동에 천주교에서 마련한 새집으로 이사. 이정태, 신현익, 배경석, 손일순, 김희경 회원이 애쓰셨습니다.
- 31 • • • 봉천동 새 집 방문해 도배 장만을 하고 이사짐 정리.
 - • • 낙성대 만남의 집과 갈현동 만남의 집에 생활지원금 드림
 - • • 연고가 없는 출소 장기수 선생님 4분에게 생활지원금 드림
 - • •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최호경, 이화춘, 민경우씨 자녀에게 드림

출소장기수선생님들 소식

- 조창순, 안학섭, 양희철 선생님이 관악구 봉천7동 220-4호 15동 5반에 천주교에서 새로 마련한 집으로 5월 30일 이사, '우리 탕제원' 을 열었습니다. '우리 탕제원' 집들이를 6월 21일(월) 오후 5시 하기로 했습니다(전화 871-1056).
- 98년 3월 13일 사면으로 풀려나 그동안 낙성대 '만남의 집'에 살고 계셨던 최하종, 김인수 선생님께서 관악구 봉천6동 1688-147 102호에 새 집을 마련하여 6월 7일 이사하였습니다. 갓 이사하시어 당장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제 도구가 준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변에 사용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연락바라겠습니다(전화 879-0079).
- 과천 '한백의 집'에 계시는 홍문거, 장호, 김은환, 안영기 선생님께서 과천 호프 호텔 2층 매장에 "한라에서 백두"로 이름지은 헌책과 현옷 가게를 마련해 책과 옷, 진열장 등을 준비한 끝에 지난 달 27일 책가게에 이어 5일, 옷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책, 현옷을 모아 보내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전화 504-3954).
- 권주환 선생님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 상추 등 야채 가꾸기 정성 다하시고 계십니다. 곧 싱싱한 야채를 먹을 수 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 5월 24일, 음성 '꽃동네'에 계시는 류한욱 선생님



생신을 맞아 회원들이 생신축하를 해드렸습니다. 한지흔 선생님이 담근 상치, 그리고 변의숙님이 준비한 떡 등 푸짐한 음식을 모처럼 야외에서 홍겨운 시간을 가지려다 많은 히가 내려 꽃동네 가까운 곳에 사시는 변의숙 어머님 댁으로 자리를 옮겨 찰밥과 미역국을 먹으면서 선생님 생신을 축하드리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건강은 생각보다 좋으셨고 병실에서도 침대에 계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말끔히 이발을 하고 나니 20년이나 더 젊어보이셨습니다. 이정태, 김태일, 변의숙, 김희숙, 류미례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5월 25일, 대전 동구 성남1동에 있는 '형제의 집' 현관식과 최수일 선생님 회갑연이 있었습니다.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성공회 '나눔의 집', 대전 민가협, 충남연합, 범민련 충남연합 등 여러 단체가 준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의 집' 이 늘 평화롭고, 선생님들 건강하시어 고향과 가족품에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 과천 '한백의 집'에 계신 홍문거 선생님께서는 3년 전인 96년 5월 17일,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책상 한 구석에 흰 봉투를 슬그머니 내려 놓으신 일이 있었

습니다. 칠순도 활씩 넘기신 몸으로 취로사업장 등에서 일을 하시고 쓰레기 등을 모아 알뜰히 챙기시면서 선생님께서 모아두신 1,000만원 모두를 양심수후원회에서 유용하게 써 달라며, 절대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조건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후원회에서는 선생님의 뜻에 따라 '집마련 기금'(복지기금 통장)에 넣어두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사면으로 석방된 김은환, 안영기 선생님과 장호 선생님 등 4분이 함께 공동체로 '한백의 집'에서 생활하시던 선생님들은 집마련, 가게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후원회에서는 선생님께서 결코 마다하시는 것을 설득하여 보관중이던 1,000만원을 선생님께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남모르는 헌신과 애정에 뒤늦게나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 출소 장기수선생님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으셔서 거동하기 쉽지 않은 89세의 이종 선생님과 늘 병석에 누워 힘든 투병을 해오고 계신 88세의 최남규 선생님, 그리고 86세의 김석형 선생님, 또 뇌졸증으로 투병하고 계신 류운형 선생님, 위장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홍경선 선생님등 낙성대 만남의 집에는 다른 '공동체'에 비해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많으십니다. 더구나 정순덕 선생님께서 뇌출혈로 입원하신 뒤 선생님들 스스로 식사 준비와 '살림살이'를 다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만남의 집'에서 선생님들을 돌보며 살림을 맡아 하실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남민전 사건으로 최고형을 받고 옥중에서 희생을 당하신 고 이재문 선생의 사모님이신 김제원님이 선생님들에게 작은 일손이라도 되어보겠다고 오시게 되어 낙성대 만남의 집의 '식당체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들 건강을 빕니다.

• 움시통감시룡 지난 5월 15, 16일에 걸쳐 환경기행 '흘러라 동강, 이땅의 힘이 되어서'를 다녀왔습니다. 이종환, 김선명, 조창손 선생님을 비롯, 모두 35명이 함께하여 동강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강사 최영철), 직접 동강 급류타기와 강변걷기 등으로 신비의 동강을 답사하고 '동강살리기 범국민 한마당'에도 참석하고 돌아왔답니다. 생태계 강의를 해주신 최영철 조류협회 회장은 강사료를, 민박했던 어려운 민박집 주인 정길수 님도 후원회에 성금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총학생회가 5월 25일 국가보안법철폐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모금한 60.000원을 정순덕선생님 치료비에 써 달라며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 법대 C반 학생회에서 장터 수익금 100,000원을 양심수를 위해 써달라며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랫동안 우용각 선생님을 후원해왔던 박애신 회원이 정순덕 선생님 치료비에 써 달라며 큰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은 우용각 선생님이 박회원의 아들 여름(8세, 여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박 회원이 우선생님을 후원해왔는데 선생님께서 '여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이의 교육보험으로 보태라며 그 동안 모아둔 영치금을 박 회원에게 건네 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박 회원이 자신의 정성을 더 보태 큰 성금을 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배규선(승실대) 선생님께서 양심수를 위해 써달라며 1,000,000원의 큰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규철 양심수후원회 감사(민자통 상임의장) 님이 6월 1일, 중국 용정에서 열린 "통일애국인사 문익환 목사 용정 5주기 추모" 행사에 박세길 전국연합 편집위원장 겸 정책위원장 등 3명과 함께 전국연합 대표단으로 참가하고 김포공항에 들어오다가 서울경찰청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6월 8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민가협 어머니들이 서울대 대동제 기간 '양심수를 위한 민가협 장터'를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했으나 18일 밤, 학생들의 의사사건으로 대동제가 취소되어 19일 동국대로 옮겨 20일까지, 21일 경희대에서 장터를 여는 등 민가협 어머니들이 크나큰 수고를 하셨으나 석방기금 마련 계획이 기대에 훨씬 못미쳐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머니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일 저번일

양심수 석방추진을 모임들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양심수들의 석방추진을 위한 모임들이 속속들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노동자 출신 양심수 최호경 석방추진 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앞으로도 아래와 같은 석방추진 모임이 만들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세계적인 수학자 안재구 교수 석방추진위원회" 결성식

남민전 사건으로 10년동안 옥고를 치루고 1988년 석방되었다가 94년 국가보안법 위반(구국전위 사건) 혐의로 구속,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안재구 선생(66세·전 숙명여대 교수) 석방추진위원회 결성식이 6월 22일 오후 7시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조덕원 석방추진위원회" 발대식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하대 법대 대학원 재학중인 94년 민족해방

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되어 8년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인 조덕원(33세) 석방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6월 20일, 오후 3시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류락진(72세) 선생 석방추진 준비위원회 열리다

통력당 재건사건으로 20년동안 옥고를 치루고 풀려나 서예가로 활동하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 8년

"세계적인 수학자 안재구 교수 석방추진위원회" 결성식

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류락진 선생의 석방추진 준비위원

회 모임이 6월 8일 광주 5·18 유족회

사무실에서 열려 앞으로 선생의 석방

운동에 온힘을 모으기로 했답니다.

"7년째 갇혀있는 노동자 출신 양심수 최호경 후원을 위한 하루주점"

94년 민애전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노동자 출신 양심수 최호경(42세·20년형)

"조덕원 석방추진위원회" 발대식

후원을 위한 하루주점이 6월 19일 (토) 경원대학교 F동 공연장(분수대)에서 열립니다.

정순덕 선생님 치료비 모금에 정성을 보내주신 분들

정순덕 선생님 치료비 모금에 크고 작은 정성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수많은 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차츰 나아지고 있으며
현재 인천 나사렛 병원에서 병원측의 도움으로 투병중이십니다.

정성을 보내주실 분들은

국민은행 008-01-0579-881 예금주 권오현

강두형	40,000	강미란	30,000	강미정	150,000	강순정	20,000	강영숙	30,000	
강용주	20,000	강종건	200,000	고난함께모임	500,000	고대훈	20,000	곽윤이	100,000	
고대훈	20,000	고바야시아끼	50,000	고석천	10,000	곽윤이	100,000	곽윤이	100,000	
곽정희	30,000	구로구청동주부들	250,000	구자승	30,000	구자옥	100,000	국승환	100,000	
권경숙	200,000	권영숙	30,000	권영안	100,000	권오현	100,000	김동	200,000	
김란	50,000	김호	10,000	김경아	30,000	김경희	100,000	김단순	10,000	
김도애	10,000	김미정	50,000	김미향	50,000	김민석	10,000	김범수	윤정혜	
김선명	50,000	김세일	30,000	김수룡	50,000	김수영	50,000	김숙현	100,000	
김연경	50,000	김영자	10,000	김영철	100,000	김옥례	200,000	김용수	20,000	
김주영	100,000	김창원	10,000	김태오	100,000	김태현	100,000	김태현	100,000	
김호현	100,000	김희선	100,000	나라사랑청년회	130,000	남동숙	50,000	남숙희	50,000	
독립영화협의회	100,000	동대문교회	600,000	류운형	20,000	마숙빈	10,000	무명	20,000	
무명	30,000	문교선	50,000	문명식	50,000	문은경	50,000	문장식	30,000	
민가협양심수후원회	500,000	민족동국	60,000	민호식	100,000	박경이	20,000	박미가엘	10,000	
박선이	100,000	박성진	50,000	박세인	100,000	박순경	50,000	박애신	1,000,000	
박영천	20,000	박용일	300,000	박정숙	김선분	50,000	박제근	20,000	박종기	100,000
박형배	10,000	방성일	50,000	방호명	10,000	배영일	10,000	백영민	50,000	
불교장기수후원회	500,000	서영희	30,000	서용순	50,000	서용순	20,000	백주선	20,000	
성심수련회	100,000	송계채	50,000	송도자	100,000	송성애	100,000	송영도	100,000	
송은경	30,000	송충현	30,000	신임제	3,000	신창호	10,000	송은경	30,000	
안명우	50,000	안민식	330,000	안혜경	20,000	암선테크	50,000	신혜숙	20,000	
오순아	30,000	오승대	200,000	용준희	50,000	우양식	100,000	양용주	30,000	
유금신	10,000	유금신	10,000	유기수	100,000	유문화	100,000	유현순	20,000	
육혜경	200,000	윤정옥	10,000	윤지희	20,000	윤현희	30,000	육일로인회	100,000	
이경우	20,000	이난주	50,000	이동현	10,000	이두화	100,000	이명임	50,000	
이미진	30,000	이미현	30,000	이선민	10,000	이세균	20,000	이수경	20,000	
이은애	30,000	이은정	20,000	이재석	50,000	이정호	200,000	이종각	100,000	
이준봉	30,000	이창희	10,000	이춘영	30,000	이춘우	30,000	이태희	50,000	
이현정	5,000	이혜정	10,000	임구영	100,000	임기란	30,000	이수경	20,000	
장경상	20,000	장동찬	100,000	장문규	10,000	장병인	100,000	장종문	20,000	
전재영	10,000	정면화	50,000	정미아	20,000	정범구	100,000	정봉성	20,000	
정정엽	20,000	정정자	10,000	정택진	100,000	정해열	20,000	조기환	30,000	
조은미	20,000	조행도	100,000	조현미	20,000	지명희	10,000	조순덕	30,000	
천장호	50,000	천주교장기수후원회	500,000	최찬	50,000	최수일	10,000	조용철	10,000	
최선숙	100,000	최선희	300,000	최세열	500,000	최유립니다	20,000	조현정	20,000	
최진희	30,000	최현숙	50,000	최형조	50,000	하강주	30,000	한현숙	50,000	
한상권	300,000	한선우	20,000	한장호	20,000	한창우	355,000	한현숙	100,000	
허윤호	30,000	허은좌	20,000	허찬영	100,000	홍보영	50,000	허연화	20,000	
홍숙희	50,000	홍승훈	30,000	홍진경	30,000	홍건영	50,000	홍성태	20,000	
				희망을	30,000			홍숙희	50,000	